

- 주요 뉴스: 미국 11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상승세 지속. 12월 금리인하 전망은 유지
 - ECB 통화정책회의, 주요 정책금리 25bp 인하. 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 등을 반영
 -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종료, '25년 확장적 재정정책 및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천명
 - IEA, OPEC+가 증산 계획 철회해도 내년 원유시장의 공급 과잉은 불가피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11월 생산자물가지수의 예상치 상회, 국채금리 상승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 차익매물 출회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시장 영향 등으로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ECB의 금리인하 등이 원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내년 금리인하 전망 후퇴 등으로 3주래 최고치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상승 마감

※ 뉴욕 1M NDF 증가 1429.0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30.7원, 0.01% 상승). 한국 CDS 하락

		12/12일	12/11일	전일대비			12/12일	12/1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051.3	6,084.2	-0.54%	국채 금리 10y	미국	4.33%	4.27%	+6bp
	유럽	519.20	519.95	-0.14%		독일	2.21%	2.13%	+8bp
	중국	3,461.5	3,432.5	+0.85%		영국	4.36%	4.32%	+4bp
	일본	39,849	39,372	+1.21%	CDS 5y	한국	36bp	37bp	-1bp
	한국	2,482.1	2,442.5	+1.62%		중국	61bp	61bp	-0bp
환율	달러지수	107.02	106.71	+0.29%	위험 지표	EMBI+	-	356	-
	유로화	1.0468	1.0496	-0.27%		VIX	13.92	13.58	+2.50%
	엔화	152.63	152.45	-0.12%		WTI유	70.02	70.29	-0.38%
	위안화	7.2691	7.2630	-0.08%	원자재	구리	419.2	421.4	-0.53%
	원화	1,430.5	1,430.9	+0.03%		금	2,680.7	2,718.2	-1.3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1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상승세 지속. 12월 금리인하 전망은 유지

- 11월 헤드라인 생산자물가지수(PPI)의 월간 및 연간 상승률은 모두 전월비 높은 수준(각각 0.3%→0.4%, 2.6%→3.0%)을 나타냈고, 예상치(각각 0.2%, 2.6%)도 상회. 근원 PPI의 월간 및 연간 상승률은 전월에 비해 낮은 수준 및 보합(각각 0.3%→0.2%, 3.4%→3.4%). 예상치(각각 0.2%, 3.2%) 대비로는 보합 및 오름세 강화
- 세부항목 기준으로는 상품 가격이 조류독감 여파로 계란(+54.6%), 채소(+33.0%) 등 식품부문의 급등으로 전월비 0.7% 상승. 반면 서비스 가격은 자산운용 수수료(-0.6%) 및 항공료(-2.1%) 등의 하락 영향으로 낮은 수준인 0.2% 상승. 투자자들은 연준이 주시하는 서비스 물가가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BofA)
- 한편 12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전주비 1.7만건 늘어 24.2만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2개월래 최대치. 연속 및 4주 평균 청구건수 역시 전주비 증가(각각 187만건→189만건, 21.8만건→22.4만건). 이번 결과는 노동시장 악화가 아닌 추수감시절에 따른 계절적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Pantheon Macroeconomics)
- 서비스 부문의 물가 안정세와 전반적인 고용시장 냉각 신호를 고려한다면, 다음주 예정된 12월 FOMC에서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 다만 트럼프 정책 등으로 내년 금리인하 속도는 둔화될 소지. CME의 FedWatch Tool은 금년 12월 및 내년 2회(3월과 7월, 각각 0.25%p)의 금리인하를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ECB 통화정책회의, 주요 정책금리 25bp 인하. 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 등을 반영

-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주요 정책금리(수신금리:3.25%→3.00%, 리파이낸싱금리: 3.40%→3.15%, 한계대출금리:3.65%→3.40%)를 인하한다고 발표. 금년 및 내년의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각각 0.8%→0.7%, 1.3% →1.1%). 성명서에는 '충분히 제약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
-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제조업 활동 위축과 서비스업 경기 둔화 등을 거론하며 경기 하방 리스크를 경계.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유로존 수출 및 경제에 미칠 영향도 주시. 한편 선물시장에서는 내년 1월과 3월의 0.25%p 인하를 전망

■ 스위스 중앙은행, 예상보다 큰 폭인 50bp 금리인하. 스위스프랑화 강세 억제 등이 목적

- 정책금리를 0.5%로 하향 조정하여 시장 예상(25bp) 보다 큰 폭인 50bp 금리인하를 단행. 이는 스위스프랑화 강세와 낮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조치로, 현행 금리수준이 너무 제약적이라는 판단에 근거. 숄레겔 신임 총재가 필요 시 마이너스 금리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내년 3월 추가 인하를 전망

■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종료, '25년 확장적 재정정책 및 완화적 통화정책 시행 천명

-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당국은 내년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및 통화정책의 기초 전환을 결정.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적자 비율 상향 조정과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확대를 추진. 통화정책은 '적절한 시기'에 지급준비율 및 금리 인하에 나설 계획. 다만 시장에서는 정책 규모와 추진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고 평가

■ 일본은행, 다음 주 금리동결 유력. 내년 초 인상 가능성은 유효

-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다음 주 예정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해외 위험 요인과 내년 임금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상 자제할 전망. 일부 위원은 12월 금리인상을 주장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1월 혹은 3월 인상 의견이 우세

■ IEA, OPEC+가 증산 계획 철회해도 내년 원유시장의 공급 과잉은 불가피

- OPEC+가 당초 계획을 늦춰 내년 4월부터 증산을 시작할 경우 일일 140만배럴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전망. 증산 계획을 취소하더라도 일일 95만배럴의 공급 과잉이 예상. 이는 중국 경기 둔화 및 非OPEC 산유국들의 생산 증가 등에 기인

■ 호주 11월 실업률, 3.9%로 전월비 하락. 내년 2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소폭 축소

- 11월 실업률은 3.9%로 전월(4.1%) 및 예상치(4.2%) 하회하며 8개월 만에 최저. 해당 기간 정규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35,600개 늘어나고 실업자 수는 감소. 이에 중앙은행의 내년 2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하락한 것으로 추산(68%→55%)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1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수출입물가, 유로존 10월 산업생산, 독일 10월 무역수지
- 영국 10월 산업생산, 중국 11월 신규위안화대출

미국 대선 이후 주요 동향 및 해외시각

■ [주요 동향] 트럼프, 타임紙 올해의 인물로 선정. 캐나다는 트럼프 관세 강경 대응 시사

○ **타임紙, 올해의 인물로 트럼프 선정** : 타임紙는 정치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트럼프를 '24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 트럼프는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협상카드로 삼아 러-우 전쟁 종식을 모색하겠다고 발언. 또한 소아 백신 접종 의무화 폐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군대 동원 등을 예고

- 또한 뉴욕증권거래소에서의 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가 강력해질 것이며,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 아울러 에너지 생산 확대와 공급망 개선 등으로 취임 후 즉시 식품 가격을 떨어뜨리겠다고 발언

○ **캐나다, 트럼프 관세에 강경 대응 시사** : 프리랜드 부총리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 관련하여 다수의 州정부 총리들이 강경 대응을 지지했다고 언급. 온타리오 州 포드 총리는 에너지 수출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여타 州정부도 보복 조치를 준비 중. 르블랑 공공안전부 장관은 국경 보호 강화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

○ **트럼프, 내년 취임식에 시진핑 초청** : 트럼프는 내년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발언. 중국 외교부는 현재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 표명. 한편 시진핑 주석은 양국 공존의 길을 모색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고,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도 차기 미국 행정부와 소통에 개방적이라는 의견 제시

■ [해외시각] 트럼프의 정책 간 충돌 예상. 트럼프 관세는 북미 에너지시장 타격 전망

○ **트럼프의 물가안정 공약, 관세·이민정책과 상충** :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해결을 공약했으나 주요국 관세 부과 등은 오히려 물가 상승 초래할 소지. 특히 북미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이민자의 기여도가 상당한 건설·식품·가공 부문의 가격 상승이 우려. 공급망 교란, 자연재해, 전쟁 등 통제가 어려운 물가상승 요인도 상존(WSJ)

○ **트럼프 관세, 북미 에너지시장 타격 불가피** : 트럼프의 對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 계획이 북미 에너지 시장에 타격을 미칠 전망. 특히 캐나다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미국 정유업계에 최대 피해 예상. 또한 미국 내 휘발유 및 전기료가 상승할 가능성. 이에 일각에서는 고관세 부과 대상에서 에너지 제품은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Bloomberg)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트럼프의 재정적자 축소 계획, 난관이 예상되나 단기 측면의 해법 존재 - Financial Times

(Trump has options to mitigate the rising US budget deficit)

- 트럼프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6.5% 규모에서 3.0% 수준까지 줄이고, 3%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공약. 그러나 목표 수준까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8,750억달러의 예산 삭감이 필요한데, 이는 전체 재량적 지출 예산(9천억달러)에 버금가는 규모. 또한 3% 성장 목표 달성과도 상충하여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편
- 하지만, 감세 및 일자리법(TCJA)의 연장 기한 단축,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부 폐지, 정부 지출 개혁 추진, 실효 관세율의 포괄적 인상 등이 시행되면 정부의 세수 부족은 일정 부분 충당될 것으로 기대. 적어도 이러한 방법들은 정부가 재정적자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단기적 경로를 제시할 것으로 판단

■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정체, 향후 금리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 유지될 가능성 - 블룸버그

(Inflation Took a Licking. Why's It Still Ticking?)

-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주거비 등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며 전월비 소폭 반등.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서비스 물가와 임대료 디스인플레이션의 종료 가능성 등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연율 2%)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 될 수 있음을 시사
- 한편, 12월 금리인하 확률은 상당한 수준이나 이후의 금리 경로는 불확실하고, 내년은 연준이 시장 예상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관세 계획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미국 증시의 고평가 논란을 심화시킬 소지

■ 미국의 對中 관세 위협, 중국의 대응은 이전보다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전망 - WSJ

(China Comes Out Swinging as Trump Trade War Looms)

-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은 양국 간 수출입 불균형 등으로 보복관세 대응에 어려움 인지. 다만 중국 당국은 최근 Nvidia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것과 같이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강화에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
- 이뿐 아니라, 중국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은 등재 조건, 유지 기간 등이 모호하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보다 광범위한 對美 압박이 가능할 전망. 이외에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전략적 광물의 수출 통제는 반도체, 배터리, 방산 장비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 대한 압박도 병행할 수 있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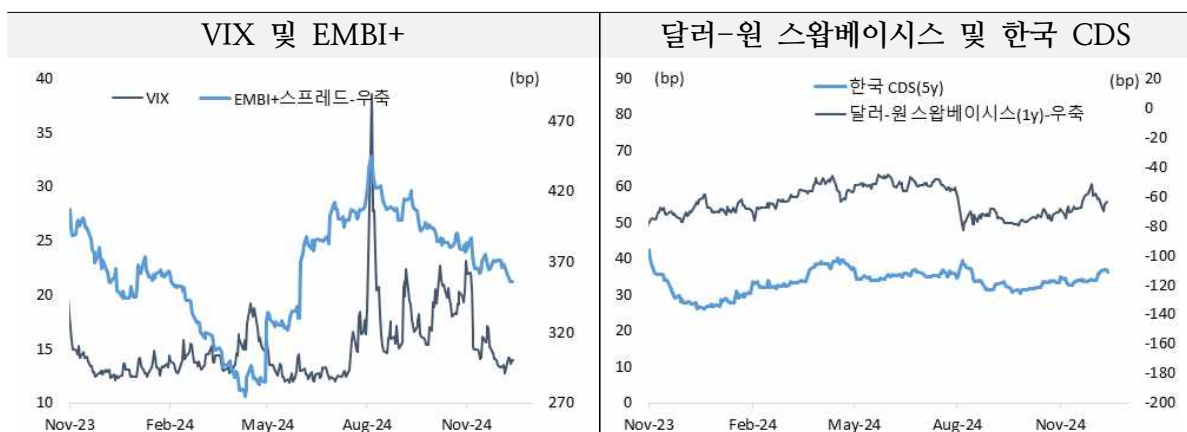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